

江山麗 ④

6. 25 日誌

朴贊雄



山麗 ④  
6. 25 日誌

1. 않고 잘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2. 않고 잘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3. 으로 한평생 밤에 비를 가릴 지붕밑에서 잘 수만 있다면  
    하지 않으리! 하고  
4. 앞을 흐르는 新川의 물줄기와  
    가 보인다. 德亭과 東豆川中間에서 약간 南쪽 지점.  
    길건너 東쪽 산악지대로 부터 오는데  
    事이 있다는 얘기다.  
    개울을 건느다가 빠져서 고생하고 있다.  
    가 나더니 敵의 野砲가 날라와 가까이서 터졌다.  
5. 돌아다보니 우리가 바로 지나온  
    적이 크게 오르고 있었다.  
6. 小隊長들에게 손짓으로 전진하라면서  
    없이 맨앞으로 쑥쑥 걸어나간다.  
    의 뒤를 따랐다.  
    우리의 머리위를 지나 後方으로 날라간다.  
    탱크 3대가 道路上에 버티고 서서 東쪽을 향해  
    있다. 東쪽 언덕위에도 탱크 2대가 올라가 있다.  
    는 들것에 실려 혹은 徒步로 後方으로 철수한다  
    가 中隊本部를 차렸던 中隊長이  
    이어서 재미없는데……하고 씩 웃는다.  
    ( 있다가 전히(?) 敵의 火砲을 맞을까봐하는 소리다.  
    ( 慮) 중에서

0611546



朴鍾姪

1926年 서울生  
舊制 京畿中卒(1945)  
서울大學校法大卒(1951)  
서울大學校行政大學院卒(1964)  
陸軍通譯轉校(1951-54)  
京畿高、板門大講師(1956-61)  
德成女大、仁荷大副教授(1969-75)  
카나다로 移民(1975)  
莫老莫韓國民主社會建設協議會人會(1976)  
同會長(1977, 78, 80, 82-86)  
莫老莫韓人會長(1987-88)

에 저축

용합시다.

매체이며,

장증에서 -

†

著書

隨筆集 「원거승이」(共著) (1970)  
隨筆集 「광과 現實과」(共著) (1971)  
歷史小說 「노동에 지난별」(朴世堂과 朴泰輔)(1973)  
「朝鮮風」(1970-86) (예년 1권의 세리스판으로)  
「1970年代의 南北關係」(1986) (세리스판으로)  
「1970年代의 韓日關係」(1986) (세리스판으로)  
『서울 1991』, 1100p

## 序 言



우리나라는 1945년 日本으로부터解放되고 1948년에가서 南北韓에 각각 정부가수립됐는데 그후 2년만에 北韓의 金日成이 南韓을 무력점령 할양으로 소위 6.25動亂을 일으켰다.

1950년 6월 25일에 北韓軍의 南侵으로 시작된 6.25動亂은 3년을 끌고 1953년 7월 27일에 休戰에 들어가 오늘날까지 34년이 지났다. 말하자면 이전쟁은 아직도 정식으로 끝난것이 아니다.

이 韓國動亂은 그출동한兵力數에서나, 사용된火力의 총량, 전체적인 기간, 犠牲者數, 財產의 피해와 文化財의 피해등에서 우리民族이 겪은 난리중에서 가장큰것이 될것이다.

나는 서울大法大在學中에 이 6.25를 맞이하여 9월 28일에 서울이 收復될때까지 家族과 더불어 나의 外家가 있는 京畿道廣州郡南終面水清里(菊秀驛에서 北漢江건너, 속칭 靑灘)로 避難을 갔었고 9.28收復後에는 通譯將校로 陸軍에 入隊하여 停戰 이듬해인 1954년까지 軍에 복무하면서 여러가지 경험을 쌓았다.

나는 이기간동안 비교적 자세히 日記를 썼고 그 원고가 아직도 남아있어 이것을 발표하는것이 後世에 참고가 되리라고 믿고 출판하기로 했다. 여기 실은 글은 그 日記원본에 독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상황설명을 붙인 것이다.

나는 언제나 우리가 李朝時代에 겪은 壬辰倭亂 때의 기록이나 舊韓末의 기록이 매우 부족함을 느껴오면서 우리의 後世들이 필경 6.25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그 생생한 기록을 찾으리라고 생각되어 이 기록을 펴내는 것이 뜻있는 일이라고 믿는다. 물론 6.25에 관해서는 壬辰倭亂이나 舊韓末 때보다는 남은 기록이 풍부하리라고 사료는 되지만.

이 책에는 내 家族들이 자주 등장하므로 당시의 家族一覽을 여기 붙인다.

## 目 次

부 친	朴定緒	1903년생	46세
모 친	呂允淑	1906년생	44세
동 생	朴贊機	1928년생	21세
	贊亨	1936년생	13세
여동생	秀貞	1933년생	17세
	孝貞	1939년생	10세
숙 부	朴健緒	1910년생	39세
고 모	朴成媛	1918년생	31세

이외에 이日記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인물로서 李官徽君과 洪承勉君이 있다.

李君(1925년생)은 해방직후부터 사귀게된 친구인데 延大英文科 재학중 6.25를 맞았다. 고향은 黃海道殷栗로 해방전에 平二中을 졸업하고 單身南下 하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서울이 共產軍에 함락된 후 우리家族의 일원이 되어 같이 避難살이를 했고 서울收復後에는 나와같이 通譯將校로 근무했다.

대법하면서도 만사에 판단력이 빠르고 독특한 유머를 지닌 그와 動亂中生死를 같이 한 것을 나는 큰다행으로 여긴다. 그는 그후 美國뉴욕에 移民와서 우표수집자를 위한 도매상을 경영하고 있다.

洪君(1927년생)은 나와는 서울師範附屬小學校와 京畿中學의 同窓이고 大學은 서울大文理大社會學科를 나온 오랜 친구다. 通譯將校 도同期生이 되어 戰前 戰後를 통해서 가장 가까이 지낸 사이다.

文才에 뛰어나고 博學多識한 風流客인 그는 후에 한국일보와 東亞日報의 編輯局長등을 역임했는데 유감스럽게도 부인 李基媛여사와 奈美양, 奎植군 男妹를 남기고 1983년에 癌으로 他界했다. 그의 명복과 유족들의 행복을 빈다.

1987년 8월 24일

朴 贊 雄

### 序 言

韓國戰爭勃發	1
서울陷落	5
共產治下의 서울	11
恐怖의 거리	16
계속되는 空襲	22
鄭鑑錄	27
家宅明渡令	31
不審檢問	35
避難準備	40
避難길 첫날	45
避難길 이튿날	52
青灘 도착	57
避難生活	62
陸軍通譯將校任官	64
逃亡列車	69
大邱를 근거지로	71
防空總本部	76
空輸部隊選拔	82
空輸部隊파견	88
練習落下①	94
空輸部隊의 P.T.	100
美軍部隊의週末	106
練習落下②	111
女軍의 交通事故	116
東村飛行場으로 移動	120

고한다. 5일전 學校民青에나갔다가 걸려들어서 현재 誠信女中에서 습宿待機中이란다. 마음이 약하니까 거절도 못하고 질질끌려간 모양이다. 아니 마음이 강해도 學校에나가면 무조건 끌려나가게 돼 있으니까 일단 學校에나가면 끝장이다. 거기서 못 가겠다고 하면 당장 반역자로 몰리니까 애초에 學校에나가지를 말아야 한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일 수록 學校에나가보게 되는데 그런 사람이 더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그길로 바로 申昌東군(法大同期, 후에 판사, 변호사) 집에 가봤다. 이 친구도 집에 없다. 혹시 나를 의심해서 없다고 거짓말하는 게 아닌가 하고 내 이름을 냈는데도 없다고 한다. 그래서 현책방이나 가보려고 忠武路로 나갔다. (忠武路는 日帝時代부터 현책방이 많은 거리다)

忠武路 입구에서 5가지 쪽 걸어봤으나 열려 있는 현책방은 두 집 밖에 없었다. 열린 집이라도 손님이 없다. 그 밖의 모든 가게가 거의 닫혀 있다. 열려 있는 집은 거의 아이스크림 가게뿐이다. 현책방의 책들을 훑어봤으나 눈에 띄는 책은 없었다. 양키市場에 들려왔다. 여기는 별 천지로 사람이 박짝박짝 끊고 있었다. 英文 타자기가 두 세 집에 한 10대 쯤 나와 있었지만 값을 물어볼 마음이 안나서 그냥 지나쳤다.

우체국 앞에 「38以北과 以南의 점령 지역을 대상으로 통상 우편을 취급한다. 다만 전에 쓴 李承晚政府의 우표는 사용할 수 없고 아직 새우 표가 안나왔으니 현금으로 편지를 부치라」는 공고문이 붙어 있었다.

### 韓國銀行 앞에서 電車를 탔다.

저녁에 李官徵군이 놀러 왔다.

「洞會에서 소집이 있어서 나가봤다가 義勇軍으로 강제로 끌려가게 됐다」고 한다. 자기는 故鄉이 以北이라 轉出하라고 하면 더 큰 일이므로 義勇軍나가는데 너무 반대도 할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이다. 義勇軍에나가는 것이 좋으냐 안나가는 것이 좋으냐—좋다는 뜻은 결과적으로 殺傷당하지 않는다는 뜻—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인간만사 새옹지마(人間萬事塞翁之馬)라하지 않았던가.

헤어질 때 「우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니 얼마 후에 다시 만나자」 고 약수를 했지만 앞의 일을 어떻게 알겠는가? 내일은 일찌감치 通義洞에 李君을 보러 가야겠다.

## 家宅明渡令

1950년 7월 30일(일) 흐림

지난밤 중에도 유엔機가 세 번 내습했다. 밤에 爆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爆彈을 떨구는 소리가 두 세 번 들린 것 같다. 人民軍이 地上으로 부터 조명탄을 쏘아 올리고 있었다. 아무 소용이 없을 텐데……

아침에 우리동네(獎忠洞) 人民委員會가 우리집의 家宅明渡를 命令 해왔다. 언젠가는 그런 일도 있겠지하고 각오는 했었지만 서울市內에서 하필이면 우리洞이 맨 먼저 걸리다니!

「8월 5일까지 집을 비우고 시굴로 轉出하라」는 것이다.

「北쪽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交通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겠으나 南쪽에 남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편의도 안 봐준다」고 한다. 곤란하게 됐다.

○ ○ ○

내가 그 속에서 태어나고 그 속에서 자라난 民族에 대한 나의 愛着은 크다. 일찍이 나는 中學시절에 친구들과 더불어 눈물로서 우리民族의 不運을 슬퍼하고 죽음으로서 民族興隆의 초석이 되자고, 다꺼진 화로 불에 들러앉아 겨울밤새는 줄 모르고 얘기에 꽂을 피운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지금 생각해볼 때 그 당시의 나의 思考의 수준이 우습기도 하지만 그 氣概만은 현재의 내가 도리어 부끄러울 지경이다.

얼굴에 <苦生>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는 韓國의 勞動者들을 볼 때 또 <素朴> 그대로를 상징하는 시굴의 農民에 접할 때 이들을 위해 이 民族을 위해 힘껏 일해보겠다는 사명감은 지금도 그때와 다름이 없다.

막연한 民族主義와 社會主義를 혼합한 당시의 나의 思想, 日本의 2. 26 사건의 장본인들의 생각에 감명 받고 共鳴한 당시의 나의 생각은 中學 5학년 때에 가서 日本의 河合榮治郎 教授의 自由主義思想에 접함으로

서 크게 영향받고 성장했따.

그런데 지금 人民軍 장졸들을 이끄는思想은 무엇일까? 막연한 民族主義와 社會主義를 혼합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思想이 지금 韓民族의 행복을 송두리째 뒤엎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나를 놓고 나를 기른 이 國土와 이 同胞에 대한 나의愛着은 모든 것을 초월한다. 자기가 자란 土地에 대한愛情은 자기가 거기 사는 동안에 뿐만 아니라 자기가 거기를 떠났을 때 크게 表出한다. 펄벅의 〈大地〉에 나오는 王龍의 土地에 대한愛着은 그가 農民이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特殊조건에서만 온 것이 아닐 것이다. 켄터키의 옛집이나 로렌라이를 그리워하는 정이 단지 거기가 아름답기 때문이었을까? 아니다. 東西古今을 통해서 수많은 詩人們이 異國의 山川을 편력하다가도 결국은 故鄉이 그리워서 故鄉으로 돌아가는 것은 인지상정이리라.

서울태생인 나는 어렸을 때 —

「나는 故鄉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曾祖父까지 10대의 산소가 江原道鐵原에 있다. 그러나 나 자신은 서울태생이다.) 故鄉이란 山과 개울이 있고 꽃피는들과 여름을 즐길 수 있는 그늘과 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러한 선입감은 내가 小學校 6학년 때에 깨졌다.

나는 그때 新義州에서 鴨綠江을 건너 滿洲安東까지 2박3일의修學旅行을 갔다가 夜間列車로 서울로 돌아왔다. 列車가 서울驛 플랫홈에 들어설 때 나는 아주 비상한 그리움을 느꼈다. 都市 사람도 시골 사람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이유 없이 자기가 자란 都市에 끌없는 향수를 느끼는 것이다. 汽車에서 네려 解散을 하고 驛앞으로 나오니 높은 텔딩이 있고 電車가 다니고 사람들의 발길이 바쁘다. 외견상 農村과 都市는 차이가 많지만 서울에서 자란 내가 서울에 대해 갖는愛着은 그 본질에 있어서 시골 사람과 다를 바 없다.

첨령당국이 서울市民에게 轉出命令을 네린 이유로서 그들은 空襲을 내걸고 空中戰을 내건다. 얼마 전에 自轉車와 짐수레의 큰 길 通行禁止令을 내렸을 때는 〈都市美觀〉을 내걸었었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人을 무지몽매하다고 보고 모든 것을 宗教的으로 믿게 하며, 믿지 않는

자를 〈反動〉이라고 규정지어 반역자라고 부르며 그렇게 해서 인테리들을 완전한 탈락자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왜 그들은 人民을 속이는 것일까? 그들은 人民의 행복을 위해 人民을 속이는 것이라 한다. 그들에게는 모든 사람이 제각기의思考力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苦痛스러운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先師 칼 맙스의 唯物論의 가르침이다.

서울의 爆擊이 시작된지 이미 한 달이 되지만 유엔機가 단 한 발이라도 서울의 市街地에 爆彈을 떨군 일이 있는가?

共產軍의 飛行機가 우리의 視界에 단 한번이라도 나타난 일이 있는가?

그런데 空襲이 있으니까 집을 버리고 나가라, 空中戰이 있을 거니까 집을 버리고 나가라 한다. 아아 가련하도다, 가증하도다, 共產黨놈들의 거짓말이여!

나의 故鄉 서울로부터 5일 이내에 집을 버리고 나가라 한다. 이것은 解放직후 北朝鮮에서 共產政權이 그들이 규정한 民族반역자(?) 들에게 취했던 것과 같은 조치다. 이제 모든 市民들은 저희들의 능력껏 옷과 양식을 질며지고 家族과 더불어 방황해야 한다. 이것이 은혜로운 共產黨이 우리를 空襲이나 空中戰의被害로부터 보호해주는 일인 것이다! 아아 고맙도다, 人民共和國!

○ ○ ○

오늘 아침쯤 義勇軍으로 벌써 나갔을지도 모를 通義洞의 李官徵군을 찾아가니 그는 태연히 침대에 누워 있었다.

「나가는 척하다가 어젯밤에 술 껌 빠져나왔다」는 얘기다. 그는 그 상황을 나에게 자세히 설명해주었다.

고모부(徐載元, 37, 高大教授, 변호사, 官徵군은 고모부 댁에 하숙하고 있음)를 찾아가 우리에게 轉出命令이나 왔다는 얘기를 했다. 뚱뚱하고 혈색 좋은 고모부가 요새 수척해보이고 얼굴도 누래졌다.

官徵와 같이나와서 惠化洞 叔父(朴健緒, 39, 朝興銀行 직원) 댁에 가봤다.叔父는 안계시고 賛敬이(15, 4촌동생)가 勤勞隊에 나갔다가 어제 풀려나왔다 한다. 몸이 허약한 자 52명이 勤勞隊로부터 풀려나고

나머지는 모두 人民軍에 편입됐다는 것이다. 아마 나이가 어려서 몸이 약한자로 분류된 모양이다. 재수가 좋았다.

賛敬이가 그 勤勞隊에서 人民裁判이 벌어졌던 얘기를 한다 —

勤勞隊에 나온 서울大文理大學生 한명이 人民裁判을 받았다. 전에 左翼이라는 이유로 그에게 얻어맞은 일이 있는 그의 친구가 그를 고발한 것이다. 그 친구가 그學生의 犯罪(?)을 말하고 모든 勤勞隊員에게 처치여하를 물으니 모두 「죽여라, 죽여라!」 하고 소리쳤다 한다. 그래서 人民軍兵士에게 통고를 하니 그兵士가 나와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서 결정해 달라」고 모든 學生에게 말했다는 것.

그러자 學生들이 또 「죽여라, 죽여라!」 하고 소리치므로 그學生에게 유언을 말하라고 했다 한다. 그러니까 그 學生이 —

「나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지금 義勇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죽어야지요. 여러분의 건투와 하루빨리 全朝鮮이 解放되기를 빌뿐입니다. 朝鮮人民共和國만세!」라고 말하고 바로 銃殺됐다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大韓民國學生들의 貧困한思想의 수준이요 精神的 환경이다. 처형받은 자, 그리고 처형을 주장한 學生대중과 人民軍兵士, 이들을 법률적 견지에서 또 思想의 견지에서 하나하나 분석해서 해볼 가치가 있을까?

그가 전에 左翼學生을 뺐다니, 이 처형된 學生은 國家權力を 등에 업고 주변을 휘둘른 右翼깡패學生이었는지도 모른다. 죽음을 앞에 놓고 한 그의 진실한 마음은 진실일지도 모르고 살기 위해서 한 同情誘導作戰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學生들은 그 말을 받아들여 그 끝을 봐야 했다. 아니, 學生들에게 이런 재판을 할 권리가 있을 수 없다! 다른 章嚴性, 특히 生命의 귀중함을 이 民族은 언제나 돼야 깨닫지 못했던가!

## 不審檢問

1950년 8월 1일(화) 개임 소나기 흐림

아이들이 땅에서 지렁이를 발견했을 때 이를 마구 짓이기는 수가 있다. 또 도망가려는 개미를 못가도록 막으면서 밟아죽이는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 도망가려는 곤충들은 살기 위해서 도망칠 가능성이 있을 줄 알고全力을 다하지만, 그와는 비교도 안 되는 큰 힘이 이를 꼼짝 못하게 한다. 현재 서울 사람들의 처지가 바로 이런 것이다.

國家權力이라는 것은 실로 막강한 것이다. 적어도 그權力이 미치는 한 도내에서 무한대이다. 이것은 오늘과 같은 專制主義下에서는 더욱 강하게 느껴진다.

共產主義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盲目的國家主義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을 떠나라는 命令을 받으면 이에 대항할 길이 없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무슨 반항적感情도 생겨나기 어렵다. 막연한 不快感 — 왜 不快한지가 막연한 것이 아니라 不快한 마음의 상태가 막연하다는 뜻 — 이 안개에 쌓인 듯한 개일 수 없는 不快感은 우리 땅에서 적어도 鐵의 커튼이 걷힐 때까지 계속될 것 같다.

아침 일찍 自轉車로 惠化洞 洪承勉 군집으로 가다가 도중에 孝悌人民委員會 앞에서 不審檢問에 걸려 調査를 받았다. 그 앞을 지나는 젊은이들은 步行이고 自轉車고 다 잡아들이는 판이었다.

나는 承勉군이 解放 직후 留學차 日本으로 밀항했을 때 (결국은 바로 잡혀서 돌아왔지만) 나에게 맡겨둔 原稿 한 통치를 그에게 돌려줄 생각으로 셔쓰 속에 감추고 가는 길이었다. 빈 自轉車를 타고 다니면 不審檢問에 걸리기 쉽다고 해서 自轉車 뒤 짐대에는 고무줄 통치를 잔뜩 감아 놓았다.

承勉군의 原稿는 中學 졸업 직후의 감상록 같은 것으로서 共產主義를

비판한것은아니지만 自由主義색채가강하고 英語로쓴것이어서 들키기만하면 承勉군이나 나나 최소한 며칠간 教化所(유치장)에 갈것을 각오해야하며 教化所는 바로 義勇軍나가는 待機所같은데라는것도 알아야한다. 왜냐하면 教化된증거는 義勇軍지원으로 확인될수있기 때문이다.

나는 쓰고있던 밀짚帽子를 가슴에대어 原稿뭉치로 가슴이 불룩나와 있는것을 감추면서 人民委員長이 앉아있는 큰테이블로 가까이갔다. 길에서 마구 잡혀들어온 젊은이들은 모두 한차례 調査를 받고 의자에 앉아있다. 나이 40이 쪼꼼 넘은듯이보이는 구루마꾼 같은 사람이 委員長이다.

「지금 事務所 앞을 지나다가 세워서 들어왔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걸까요?」

그의 말투는 아주 공손하다.

「市外轉出命令을 받아 짐을 自轉車로 惠化洞에 사시는 삼촌댁으로 옮기는 중입니다.」

「故鄉이 어디십니까?」

「서울입니다.」

「서울 사람에게 轉出하라고는 안했을텐데……」

「獎忠洞1가는 전부 轉出命令이네렸습니다. 거기뿐 아니라 그부근은 전부 8월 5일까지 轉出하도록 돼 있습니다.」

「轉出할 때 짐은 전부 洞會에 맡기게 돼 있을 텐데요.」

洞會의倉庫가 얼마나 크기에 轉出나가는市民들의 짐을 다 맡는단 말인가. 웃기는 소리하고 있다.

「아닙니다. 짐은 각자가 마음대로 처리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당신 말씨를 들으니 서울 사람 같지가 않은데요?」

내가 純서울토박이인데 이제 이 놈이 공연한 시비를 걸기 시작한다.

「안 그렇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라 서울밖으로는 한발짝도 나가서 산 일이 없습니다.」

내 말은 누가 들어도標準말이다. 이 친구, 나를 볼 때 요령이 좋지 못하다. 나는 오른손으로 帽子를 쥐고 오랜동안 원쪽 가슴을 감추고 있는 것

이 의심을 받지 않을까하고 속으로 큰걱정을 하고 있었다.

「나이가 몇이오?」

이것이 가장 곤란한 질문이다.

「28세입니다.」

나는 실제보다 세살을 려서 대답했다.

「왜 이제껏 義勇軍도 안나가고 建設突擊隊에도 안나갔지요?」

그는 의기양양해서 묻는다.

「學校에서 친구들과 같이 義勇軍을 지원했었는데 몸이나빠서 審查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굴로가 몸을 튼튼히해서 다시 義勇軍에 지원할 생각입니다.」

「自轉車에는 짐이 실려 있겠군요?」

「네. 밖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自轉車 짐대에는 고무줄묶음이 한 줄 불들어매어 있을 따름이다.

「좋습니다. 돌아가시오.」

「아이고 살았다」하고 事務室을 나와 自轉車를 타고 惠化洞 쪽으로 달리니 저 앞에서 또 自轉車를 세우고 있는 光景이 보인다. 그래서 쑥 옆골목으로 빠졌다.

承勉군한테 가서 간단히 사정 얘기를 하고 우리家族이 8월 5일 안에 서울을 떠나게 됐다고 알려주고 叔父댁에 갔다가 空襲警報가 나는 바람에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 ○ ○

오후에는 忠武路의 外叔母(呂秉九자당) 댁을 방문했다. 우리家族이 현재 비어 있는 青灘(京畿道廣州郡南終面水淸里)의 外叔父댁으로 轉出하기로 했으므로 인사를 간 것이다.

「비어 있으니까 가서 마음대로 쓰라. 그러나 가는데 고생할 것」이라고 外叔母와 빙구(外從弟, 나보다 3살 아래, 현재 工大천기과 3년, 후에 會社경영, 캐나다 移民)가 말한다. 빙구는 8球짜리 美軍用 대형 短波 라디오를 듣고 있었다.

이 忠武路의 外叔母에게는 아들셋, 딸 하나가 있다. 천재로 알려진 長男呂경구는 中央高普를 거쳐 日本早稻田大學을 나와 解放되기 까지

日本의 古河電機의 기사로 일했고 解放後엔 잠시 서울大教授로 있다가 곧 越北하여 興南工大學長겸 興南國立工場의 工場長이 됐다는 소식이다.

차남呂동九(나보다 한살 위, 中央高卒)도 형을 따라 以北으로 가 興南工大에 入學했다가 짚어서 뇌일혈(?)로 사망했다. 이 일은 친척들은 다 알지만 빙구가 노령인 母親에게는 绝對로 알리지 말라고 해서 外叔母만 모르고 계신다 한다. 딸 여효영은 나보다 8살 위로 市廳직원과 결혼해서 친정에서 같이 살고 있다. 人民軍이 들어온 후에도 매부는 계속 市廳에 나가勤務하고 있다.

천둥소리가 요란하다가 날이 커멓해지고 소나기가 퍼부었다. 천둥소리는 爆擊소리와 区別이 잘 안 된다. 천둥소린지 爆擊소린지 아무려면 어찌나고 할지 모르나 나로서는 그것이 重大問題이고 그것이 爆擊소리이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런 천둥인지 爆擊인지 모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金永濟군집으로 소식을 들으러 갔다.

오늘부터 유엔安全保障理事會가 소련의 마리크대표사회로 열린다고 한다.

中共을 유엔에 가입시켜주지 않는 自由陣營國家들에 저항하기 위해 소련은 그간 이 安保理를 보이콧해 왔다. 그런데 그사이에 이 安保理가, 유엔軍의 韓國出兵을 가결했다. 그러니까 소련이 安保理를 보이콧하지 않았던들 유엔軍은 韓國에 오지 못했고, 기껏해야 美軍만이 파견됐을 것이다. (安保理는 예나 지금이나 회원국 만장일치제이므로) 그래서 뒤늦게나마 소련이 보이콧을 취소하고 安保理에 출석하게 된 것이다.

오늘은 金永濟군의 라디오에 잡음이 많아 NHK의 제1放送이 잘 안 들린다. 제2放送을 틀어보니 野球중계를 하고 있다. 日本人들이 친한 태평으로 野球를 즐기고 있는 것이 부럽다.

○ ○ ○

나의 근원적인 人生觀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을 것이나 실용적인 면에서의 人生觀—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은 이번 戰爭의 영향을 받았다. 그 말은 이 이후 나는 무엇이 되겠다는 出世慾이나 무엇을 얻겠다는 物慾을 일체 갖지 말자고 다짐했다는 뜻이다. 내가 좋아하

는 일을 하고 自由롭게 생각하고 自由롭게 말할 수 있는 한 하루 세끼 보리밥 먹고 비안맞을 방 하나만 있으면 무엇이 더 필요하랴!

물론 나의 이제까지의 人生觀도 무엇이 되겠다거나 무엇을 얻겠다거나 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지만 이번에 무의식적으로 나마 가지고 있던 物慾과 出世慾이 내 머리로부터 쏙 가셨다는 말이다.

유엔軍의 참전을 바라고 있는 한 친구가 韓國에서 戰爭의 올림픽이 시작됐다고 말한 바 있다. 올림픽이라도 뭐라도 좋으니 유엔軍이 제발빨리 밀고 올라와줬으면 좋겠다.

龍山방면을 빼놓고는 서울市內에 대한 空中으로부터의 攻擊은 없었다. 이것은 고마운 일일지만 그렇기 때문에 共產黨의 行政機關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도모지 견딜 수가 없다. 실제로 질서정연해서 죽을 만치 괴롭다. 市街地를 爆擊해서 行政질서를 교란시켜 <機關>에서 일하고 있는 놈들에게 不安全感도 주고 서울의 분위기를 좀 술렁거리게 해줬으면 좋겠다. 서울市民들은 市街地가 绝對로 爆擊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따라서 아무도 空襲으로부터의 生命의 위험을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防空壕를 파라는 상부지시에 대해 모두들 말은 못하지만 코방귀를 뀌고 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自暴自棄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 ‘내가 죽어도 좋으니 서울의 市街地를 마구 爆擊해줬으면 좋겠다.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나도 같은 생각이다. 그러나 유엔軍이 정말 市街地를 爆擊한다면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하지 않을 것이다.